2026 - 04 - 10 - i c s c 금요 치유메시지 녹취록
말씀제목: 벧엘로 올라가라
말씀구절: 창35:1-5

들어가는 말씀
제 생각인데 예배가 안되는 렘넌트들에게는 그리스도 3직을 고백하게 하고 또는 쓰게 하는방법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거기에 관련된 성경구절을 뽑아서 쓰게 하고 카톡방에 만들어서 거기에 올리게 하는것이다. 이제 예를 들면 마16:16-19 3직에 대한 성고와 함께 쓰게 하는것과 이번주 강단 말씀 한구절 정도 쓰게 하는것이다. 이것을 기본으로 하고 메시지 할때는 항상 듣던지 안듣던지 기본메시지를 해야 한다.

근본문제 세가지 그리스도 3직 항상 무조건 해야 한다. 예배를 방해하는 사단과영적전쟁을 선포한다는 마음으로 메신저가 해야 한다. 전에도 임전도사에게 말했는데 청년들하고 이야기 해서 아이들과 놀아주라고 될때까지 계속 이야기 하라. 청년들 중에는 직장을 가졌기에 돈을 쓸스도 있다 그렇게 해야 한다. 계속 이야기 해서 결국 이루게 해야 하고 중고등부를 위한 기도제목이 되어야 한다. 이것은 청년들에게도 아주 축복이 된다.

그다음에 부모모임을 교사들과 함께 한달에 한번 반드시 하라. 어제 임전도사님이 전도사님 모임에 어떻게 진행하는가를 봤을것이다. 그때는 부장과 부부장과 함께 교사들이 반드시 참석하게 해야 한다. 하나님이 메신저에게는 말씀의권세를 주시게 되있어있다.
부장 부부장 교사들에게 이야기 해서 참여하시라고 말하라. 만일 주제가 없으면 처음 시작할때 어떻게 해야 부흥시키고 집중시킬수있겠냐고 질문을 하고 기도하라 선생님이나 부모님들이 성경적인 답을 가진자가 많지 않을것이지만 계속 모여서 기도하고 포럼하고 하면 뭐가 나타나게 되있다.

항상 우리가 이야기 하지만 지속이 너무나 중요하다. 어제 전도자 모임때 이야기 했는데 이것은 절대 중단할 모임이 아니라고 했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이 하라는데로 기도를 계속 하면 응답이 오게 되있다. 전도가 되든지 안되든지 전도를 계속 하면 문은 열리게 되있다. 이것을 지속을 끝까지 잘 안하는 경우도 있다. 첫째는 사명이 없고 언약이 없어서 지속할 힘이 없어서 그렇다. 두번째는 함께 갈 사람이 필요하다. 임전도사는 마음에 담고 실행에 옮기기를 바란다.

중고등부가 부흥되서 자동으로 청년에 부흥 어른들부흥으로 가기를 바란다.

벧엘로 올라가라 이다. 이 단어만 해도 가슴에 은혜가 된다. (창335:1-5) 치유를 받아야 하는데 먼저

서론
1. 언약을 잡고 살고 기도해야 한다.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이다. 자기의 기도를 생각을 해보시라. 이것을 통해서 언약을 잡고 예배를 회복하라. 어냥ㄱ을 딱 잡고 기도하면 어떻게 되는가?
1) 세가지 근본문제 해결되고

2) 세가지 그리스도의 3직이 응답된다. 이것이 언약잡고 기도 하고 예배드릴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금방 진짜 인가 아닌가 생각해보면 복음 알기전과 지금을 생각해보면된다.
2. 지속하면 망대, 여정, 이정표가 나온다.
3. 정복했다는 생각이 나와 그때부터 작품이란 단어가 들어오고 237-5000단어가 들어온다. 여기에다가 777깊은 기도 들어가면 정말 답나온다.
출발은 그리스도이다. 너무나 당연한것이고 지속하면 답나온다. 다시한번 다짐하고 시작하시라. 언약잡고 기도하는데 맞는지 아닌지 헷갈릴때가 있으니 언약을 잡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나는 잡는데 왜 안잡히는가 잡히게 해주시라고 기도하시라. 잡히면 아... 잡았구나 느낌이 온다.

벧엘로 올라가란데 거기에 가면 치유가 있다 이유는

1. 치유- 약속의 피제사가 있어서
1) 근본치유가 된다. 한개만 되고 다른게 안되면 치유되었다는 생각이 안든다. 그러면 절대 증인이 안된다. 이것이면 된다는 소리를 못한다. 그렇게 안되고 모든것 다된다고 답날 수 있을만큼 증거를 주실것이다.
2) 인생치유, 그냥 인생이 아니고 평생치유이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보혈이다. 하면 그렇게 된다. 조금 진짜로 하겠다고 하면된다.
3) 이것은 완전하다 분명히 그 시간표가 오게 되있다 인생 끝까지 가고 천국까지 가는 영원한것이다. 그렇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올것이다. 진짜 평생 치유냐, 딱 되어지면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 한다. 네 평생 책임질수 있는데 내만 따라오라.
4) 3시대 나의 과거,현재, 미래 치유된다. 현재만 치유되는게 아니고 과거까지 답을 얻어 발판이 되어 오직 않은 미래에 대하여 답을 가졌다는 느낌이 들어야 한다. 그러면 정복했다는 마음이 들것이다. 이렇게 될것이다. 그리고 치유되는것은 정상이다. 복음안에 약속의 피제사 안에 들어있는 당연한 것이다.
무엇을 하면 되겠는가? 언약을 잡고 기도하고 기도속에서 언약을 고백하면 된다. 이것이 가장 힘있다. 중고등부 아이들이 여기에 눈을 뜬 아이가 나오면 달라진다.

마태복음 6:33절이 여기서 성취되는것이다. 틀림없다.

2. 하나님의 목표 – 오늘 야곱에게 네가 형을 피해서 도망가던 곳에서 나타났다. 다른데 돌아다닌게 아니다. 얍복강에서 밤새 씨름했던 때도 아직까지 안돌아왔다. 그래서 뼈를 쳐버렸다. 부러져서 평생 절둑거리면 다녔을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했기에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주었지만 아직 멀었다. 너 아직 아니야 그렇기에 벧엘로 올라가서 단을 쌓아라. 그런데 이번에는 야곱에게 진짜 들어갔다. 그래서 이것이 성경에 마지막 이야기이다.
1) 마지막부분이다.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것이다(약10장정도) 내가 야곱에게 하고 싶은이야기는 벧엘로 올라가서 단을 쌓는거야. 그뒤에 요셉과 애굽에 들어가 살았어도 야곱에 대한 이야기는 없다. 그래서 말씀듣기 전에 기도해야 하고 언약잡고 예배드려야 한다. 단을 쌓는게 뭐냐?
2) 약속의 피를 행하는 것이다. 알고 있었다. 언약안에 굉장한 축복이 있다는것을 알았는데 한번도 행하지 않았었다. 벧엘로 올라가는 야곱의 마음을 보니 이제 되었다고 하여 그의 이야기는 끝 낸것이다. 중고등부 아이들중에 이언약을 행했는가? 요셉은 했는가? 쓰는 것이

안쓰는 것보다 낫고 쓰는 중에 가슴에 언약이 들어와 새로운 눈이 열린다. 사람의 눈이 한칸 올라가면 일단 말이 달라진다. 사역자 같으면 말씀 메시지가 달라진다. 그냥 복음만 늘 이야기 해도 된다. 그런데 사람들에 따라서는 영적레벨이 다르다.

3) 예배를 진짜 하나님앞에 드리는것이다. 야곱은 알고 있었지만 예배를 드리지는 못했다 물론 마음속으로 드렸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직접 나타난적은 없다. 이것을 해야 한다. 하는것과 안하는것ㅇ든 100%차이난다. 기도해야 한다. 그런데 최고 능력 권세 있는 참기도는 언약을 고백하는것이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고백하는것이다. 그가 피흘려 하신일을 고백을 하는것이다. 이것보다더 더 사단에게 능력있고 권세있는 일은 없다. 야곱은 한번이 어것을 안했다 처음으로 하고 있는데 그 마음이 진짜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으로 끝냈다.

4) 이 언약고백을 실제로 하면 우리안에 역사하시는것이 마태복음 16:16-19절이다. 이것을 하는 사람은 인생을 반석위에 세워진 교회처럼 된다. 창수가 내리고 이래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 모래 위에 지은집은 비온뒤에 무너져 버린다. 그런일이 절대 없다. 반석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 천국 열쇠주셨기에 모든 문제 시간표에 따라 다 열린다. 내 한테 열릴문은 무조건 다 열린다. 옛날에 저는 이런 생각을 하면 낙심이 온다. 나는 그렇게 열고 싶은 문이 너무 많은데 믿음보다 부정적인 생각이 많이 든다. 실제로는 안열렸으니까 그 부정적인 생각이 안나고 역전되는 순간이 왔다. 그게 믿음이다. 어느날 들어왔다. 다 열린다. 아무도 못 막는다. 내게 열리는 문은 그것으로 끝이다. 그러데 그분이 절대 작은것이 아니다. 반드시 하나님앞에 사람앞에 역사이다. 이후에 부정적인 생각이 안안다.

3. 약속의 시간은 말씀의 시간이다.

1)9절-13절까지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한 이야기를 그대로 약속을 하신다. 창35:9-13이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이땅을 주실것이다 하늘에 별처럼... 네 게 주고 네 후손에게 주실것이다... 오늘 산업선교 메시지에서 누구든지 평생에 것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1)창35:9-13 , 오늘 산업선교 메시지중에 평생에 메시지가 있어야 한다. 가난, 전도, 경제가 류목사님의 평생 메시지이다. 이것이 그에게 평생애 터닝포인드였다.

2)출3:1-18 모세에게 평생에 말씀을 받았다. 진짜 인생정복했다. 이것 누구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것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가? 절대 지지를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마음에서 능력이 나오고 영적인 힘이 생긴다. 무슨 일이 있다고 해서 절대로 지는 소리를 안한다. 실제로 아무도 막지를 못한다.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를 따라온다. 그 사람을 따라오는 것이 주위에 있는 사람도 유익하다. 모세, 요셉시대에 그랬다 안따라가면 죽는다.

3)행9;1-15 바울에 대한것이 나온다, 바울을 따라간 사람들은 전부 시대적인 전도자가 되었다 놀랍다. 우리도 이런 시대적인 증거를 주실것이다. 기도하면된다. 축복하시기를 원하신다 절대로 저주 하시기를 원하지 않는다. 성경에 하지 말라 저주 받을 것이라고 그것은 목표는 죽이려고 한것이 아니고 살리려는 것이다. 그러나 귀신은 그게 아니고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전부 축복이고 살리고 정복하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모세에게 반대 해도 눈하나 깜빡 안했다 광야에서 얼마나 일이 많았는가 눈 하나 깜빡 안했다. 과거에 메시지 들을때 그랬겠지 했는데 나도 그렇게 되니까 약간 가슴이 통하더라 그렇지... 결국은

5) 로마로 가야 한다. 반드시 로마로 가게 되있다.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리로 가게 되있다 간다. 언약이 들어왔다 평생 언약이 들어오면 자동으로 통하게 된다. 앞에 말한 언약들이 응답으로 누리게 되있다. 오늘도 진짜 축복 누리시라.

결론

1.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다. 되는듯 잘 안되고 그런다. 다 되기를 바란다. 메시지를 세밀하게 듣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면 된다.

1) 언약궤를 따라가라 말씀 따라, 언약궤를 따라간다는것은 말씀을 따라 가는것이다. 언약궤는 성전안에서 굉장한 심볼이다. 하나님 말씀에 언약궤 아니고 다른것 따라가라고 했다면 다른것을 따라갈것인데 언약궤를 따라 갔으니

2) 마른땅으로 건너게 되었다. 여러분도 마른땅을 건너게 될것이다. 언약궤 말씀을 따라가라. 말씀이 들어오면 체질이 되버린다. 자기도 모르게 인생이 마른땅을 건너고 있음을 알게 된다.

2. 300%기도 – 결심을 해도 안되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자꾸 기도하고 말씀이 들어오면 이렇게 된다. 내가 힘내가지는 절대 안된다. 오히려 우습게 된다. 힘내려고 하면 웃긴다 마음에, 말씀이 딱 들어와 버리면 진짜 되버린다.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평안 있기를 바란다.

3. 평안과 감사하고, 그리고 치유가 되어야 한다. 깊은 은혜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 우리 모두에게 놀라운 치유가 일어나게 될것이다. 중요한 단어 내게 들어온 한 단어를 잡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